

『金匱要略·婦人產後脈證并治第二十一』에 對한 研究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¹ ·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²
이윤천¹ · 고승욱¹ · 박금숙² · 정현영^{1,*} · 금경수¹

A Study on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the Postpartum Syndromes〔婦人產後脈證并治〕」 in 『Synopsis of Golden Chamber〔金匱要略〕』

Lee Yun-cheon¹ · Koh Seung-wook¹ · Park Kum-sook² ·
Jeong Heon-young^{1,*} · Keum Kyoung-Su¹

¹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Graduate School, Wonkwang University

²Dep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Wonkwang University

After parturition, woman in childbed's health can grow worse. Because when woman in childbed gives birth, Genital organ can be damaged, and lost a lot of blood, and also consume a lot of physical strengths. So, after parturition, woman in childbed is easy to fall in disease if do not take care in health specially. So after parturition, woman in childbed should be careful in stress, sleep, food etc. This thesis described Postpartum Spasm[痙病], Oppressive Feeling and Dizziness[鬱冒], Constipation[便秘], Abdominal Pain[腹痛], Diarrhea[下利], Annoyance[煩亂] and Vomitting Sickness[嘔逆].

Postpartum Spasm[痙病]'s major symptom is rigided body. This disease corresponds to Tetanus in modern medicine, and bacterial infection is assumed for cause. By Oriental medicine, after parturition, when blood is lacking, if patient takes wind, this disease breaks out.

Oppressive Feeling and Dizziness[鬱冒]'s major symptom is dizzy head and gloomy eye. After parturition, when blood is lacking, if patient sweats too much and take cold, this disease breaks out. After parturition, if patient consumes a lot of resins of human body, Constipation[便秘] breaks out.

There are four causes to Abdominal pain[腹痛]. First, due to deficiency and cold treats by Danggwisaenggangyangyuktang(當歸生薑羊肉湯). Second, due to stagnation of Gi(氣) treats by Jisiljakyaksan(枳實芍藥散). Third, due to blood stasis treats by Ha-eohyeoltang(下瘀血湯). Fourth, due to lochiorrhea treats by Daeseunggitang(大承氣湯).

After parturition, Annoyance[煩亂] and Vomitting Sickness[嘔逆] due to fever of difficiency treat by Jukpidaehwan(竹皮大丸). After parturition, Febrile diarrhea[熱性下利] treats by Baekduonggagamchoagyotang(白頭翁加甘草阿膠湯). This disease is similar with present Bacillary Dysentery.

After parturition, Exteroceptive disease due to taking wind treats by Yangdaltang(陽旦湯). Due to wind and fever treats by Jukyeoptang(竹葉湯).

Key Words: postpartum syndromes, Synopsis of Golden Chamber[金匱要略]

I. 序論

『金匱要略婦人產後病脈證治第二十一』은 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產後病의 證治를 논하였다. 產後病은 產母가 分娩에서 產褥期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질병을 總稱한다.¹⁾ 產母는 分娩時 생기는 生殖器官의 損傷, 多量의 出血 및 과도한 體力消耗 등으로 인하여 疾病에 대한 抵抗力이 현저하게 低下되므로 飲食起居 七情 六淫에 있어 謹慎하지 않으면 疾病이 쉽게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漢醫學의 최고 서적인 黃帝內經 (『靈樞五音五味』²⁾, 『素問平人氣象論』³⁾, 『素問六元正紀大論』⁴⁾)에는 일반적인 婦人의 生理의 特徵과 妊娠脈象 또는 일부 婦人病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產後病의 治療에 관한 내용은 없다.

本 篇은 產後의 瘧病鬱冒便秘와 腹痛, 中風, 下利 및 煩亂, 嘔逆의 病症을 敘述하였다. 產後病의 病理機轉은 衝·任脈이 손상되어 失血이 過多한 것, 瘀血이 體內에 쌓인 것, 外感六淫 또는 飲食失節로 인한 것으로, 辨證에 있어서는 實證, 虛證, 虛實錯雜으로 분류하여, 治法을 체계적으로 서술하였다.

이후로 王叔和의 『脈經』, 褚澄의 『褚氏遺書』, 孫思邈의 『千金要方』을 비롯한 많은 婦人科와 관련된 서적이 나왔으며, 특히 宋代에는 婦人科學이 하나의 전문 분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는데, 陳自明의 『婦人大全良方』은 부인과의 각종 질환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治療 綱領을 제시함으로써 후대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이들은 모두 本편의 내용에 基礎를 두고 있어 婦人科學 연구에 중요하다.

현재 中國에서 『金匱要略』의 研究로는 『金匱要略譯釋』⁵⁾, 『中醫藥高級叢書 金匱要略』⁶⁾, 『胡庚辰評注金匱要略』⁷⁾ 등이 있으며 處方들의 臨床研究도 진행되고 있다. 國內에서의 研究로는 蔡⁸⁾가 原文의 懸吐를 하고 注釋을 모아둔 것과 大家敬節의 『金匱要略講話』를 國譯과 해설⁹⁾을 한 것 등이 있다.

本 篇에서 論한 瘧病鬱冒便秘와 腹痛, 中風, 下利 및 煩亂, 嘔逆에 對한 病因, 病機, 證候 및 治療原則은 現在에도 婦人產後病을 治療하는데 중요한 指針이 되고 있으나 國內에서의 本편에 대한 研究는 註釋을 모으고, 國譯과 간단한 解說을 하여 本편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校勘과 諸家의 注釋을 참고하여 原文과 處方을 理解함으로써 產後疾患에 도움을 주고자 研究하였다.

II. 研究方法 및 資料

本 論文은 原文의 懸吐, 校勘, 註釋, 國譯, 考察, 結論의 순서로 연구하였다.

1. 原文은 條文의 번호와 題目을 달았다.
2. 原文은 趙開美가 校刊한 『金匱要略方論』¹⁰⁾을 底本으로 하였다.
3. 懸吐는 蔡의 『金匱要略精解』¹¹⁾를 參考하였다.
4. 校勘한 文獻과 略稱은 표1과 같다.
5. 本 論文에 引用한 註釋書는 표2와 같고, 註釋의 내용은 懸吐를 하여 脚註로 하였다.

* 교신저자 : 정현영,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전화 : 063)850-6808. E-mail : jikjae@wonkwang.ac.kr

1) 張玉清 編著, 胡庚辰評注, 金匱要略.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0. p.419.

2) 河北醫學院 校釋, 靈樞經校釋(下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230. 『靈樞·五音五味』: “今婦人之生有餘於氣不足於血以其數脫血也..... 婦人無續者無血氣乎.”

3) 王水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129. “婦人于少陰脈動甚者 妊子也.”

4) 王水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558. “黃帝問曰 婦人重生 毒之何如 岐伯曰 有故無殞 亦無殞也”

5) 李克光 上編, 金匱要略譯釋. 上海, 海科學技術出版社. 1993.

6) 陳紀藩 上編, 中醫藥高級叢書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7) 張玉清 編著, 胡庚辰評注, 金匱要略.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0.

8) 蔡仁植, 金匱要略精解. 大邱,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1982.

9) 大家敬節 上編, 金匱要略講話. 원주, 醫方出版社. 2003.

10) 張仲景 原著, 王叔和 撰次, 林億 校正 趙開美 校刊, 仲景全書 金匱要略方論. 서울, 성보사. 1985.

11) 蔡仁植, 金匱要略精解. 大邱,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1982.

번호	書名	編著者	略稱
1	傷寒雜病論	張仲景	桂林古本
2	脈經	王叔和	脈經
3	古今醫統正脈全書	王肯堂	醫統本
4	醫宗金鑑	吳謙 等	金鑑
5	金匱要略心典	尤怡	尤本

표 1. 校勘한 文獻 및 略稱

번호	書名	著者	備考
1	金匱要略直解	程林	陳紀藩의 『金匱要略』에서 再引用
2	金匱玉函經二注	趙以德, 周揚俊	
3	金匱要略心典	尤怡	
4	醫宗金鑑金匱要略注	吳謙 等	
5	金匱要略淺注	陳念祖	
6	金匱要略淺注補正	唐宗海	
7	金匱要略發微	曹家達	
8	金匱要略論注	徐彬	
9	金匱要略方論本義	魏荔澗	

표 2. 選注書目

Ⅲ. 研究內容

第 1條. 產後 瘧病鬱冒·便秘의 發生機轉

【原文】

問曰 新產⁽¹⁾婦人 有三病하니 一者瘧瘵⁽²⁾요 二者病鬱冒⁽³⁾요 三者便秘니 何謂也요

師曰 新產에 血虛⁽²⁾多汗出하야 喜中風 故로 令病瘵요 亡血⁽³⁾에 復汗하여 寒多 故로 令鬱冒요 亡津液胃燥⁽⁴⁾故로 便秘라

【校勘】

1) 一者瘧瘵 : 『桂林古本』, 『心典』에는 “一者病瘵”으로 되어 있다.

2) 血虛 : 『脈經·卷九 平產後諸病鬱冒中風發熱煩嘔

下利證第三』에는 “亡血虛”로 되어 있다.

3) 亡血 : 『脈經』에는 이 앞에 “何故鬱冒 師曰”이 더 있다.

4) 亡津液胃燥 : 『脈經』에는 이 앞에 “何故便秘 師曰”이 더 있다.

【註釋】

(1) 新產 : 産後의 뜻.¹²⁾

(2) 病瘵 : 瘵病과 같고 身體强直의 症狀이다.

(3) 鬱冒 : 갑자기 속이 답답하면서 어지럼증이 나타나다가 심해지면 잠시 동안 정신을 잃는 증

(4) 胃燥 : 胃는 胃와 大腸을 가리키는 것으로 津液이 損傷되어 胃腸이 부드럽게 적셔주지 않아서 大小便이 말라서 멍치게 되는 것이다.¹³⁾

【國譯】

문기를 産後의 婦人에 瘵病, 鬱冒, 便秘 세 가지 病이 많이 발생하니 어째서인가?

스승께서 대답하시기를, 産後에는 出血로 血虛하고 땀을 많이 흘려서 風邪가 侵入하기 쉬우므로 瘵病이 발생되고, 皮를 많이 잃었는데 다시 땀을 흘려서 寒邪가 侵入하므로 鬱冒가 발생되고, 津液이 不足하고 위와 대장이 乾燥하기 때문에 便秘가 발생된다.

【考察】

일반적인 瘵病은 身體가 强直되는 것으로¹⁴⁾ 筋病에 해당된다.¹⁵⁾ 産後에 血虛하면 外部를 지키는 陽氣가 堅固하지 못하여 반드시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腠理가 성글게 된다. 腠理가 成글어지면 邪氣가 쉽게 侵犯하고 血이 筋肉을 滋養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風邪가 血液을 燥하게 하기 때문에¹⁶⁾ 筋肉이 强

12) 張玉清 編著, 胡庚辰 評注, 金匱要略,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0, p.421. “新產은 指生産後오 非指初産婦人이라”

13) 陳紀藩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673. “此胃는 泛指胃與大腸이니 因津液耗傷하야 胃腸失濡而致陰陽燥結이라”

14) 謝觀,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高文社, 1987, p.762. “瘵은 身體强直也라”

15) 尤怡 著, 金匱要略心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68. “瘵은 筋病也라”

16) 趙以德, 周揚俊, 中國醫學大成·傷寒金匱分冊 金匱玉函經

直되는 瘧病이 발생된 것으로 보았으나, 현대의학에서는 産後의 瘧病을 腦脊髓膜炎¹⁷⁾, 産後子癇, 産後破傷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고, 産後子癇은 産後 24 時間 以內에 많이 발생되고 肝陽이 위로 亢盛되고 血虛하여 風이 動搖하며 高血壓 또는 低血壓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 産後破傷風은 創傷部位의 感染으로 産後 一週日 前後에 發病되고 이를 악물고 쓴웃음을 짓고 빛을 싫어하고 어두운 것을 좋아하는 것이 특징이다. 臨床 所見上 産後의 瘧病은 대개 破傷風에 속하고, 腦脊髓膜炎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¹⁸⁾

따라서 비록 原文에 産後瘧病의 原因을 “喜中風”이라 한 것은 産後에 免疫機能의 低下로 인한 破傷風을 일으키는 細菌感染을 의미하는 것으로 思料된다.

傷寒에서 瘧病의 치료에는 剛瘧에 葛根湯을, 柔瘧에 桂枝葛根湯을 사용하였고, 柔瘧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하나는 虛한 상태에서 外部로부터 침입한 風邪로 인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血虛하여 筋急한 것으로 결코 外感의 風邪가 없는 경우이다. 風邪로 인한 것은 비록 땀이 나지만 반드시 惡風하니 華元化愈風散으로 치료하고, 血虛하고 風邪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惡風의 증상이 없으니 단지 補血하여야 한다.¹⁹⁾ 따라서 본 조문에 제시된 産後의 瘧病은 ‘血虛多汗出’의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柔瘧에 속하며, 惡風의 증상이 있으면 華元化愈風散을 사용하고, 惡風의 증상이 없으면 補血을 爲主로 治法을 삼아야 한다. 다만 『金匱要略』에서는 제시한 것은 없고, 이

러한 방법은 『寶鑑』에 “産後의 瘧病은 血氣가 매우 虛하여 發汗解表해서는 안되고 다만 防風當歸散을 쓰는 것이 가장 좋다.”²⁰⁾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治方으로 歸煎湯·愈風散·交加散 등을 제시 등을 제시하였다.

瘧에 대하여 陸淵雷는 ‘瘧’를 ‘瘧’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說文·疒部』에 “瘧 強急也”라 하고, 『金匱要略·瘧濕喝病脈證治第二』에 “瘧爲病 胸滿口噤 臥不着席 脚攣急 必斷齒”라 한 것과 謝觀이 ‘瘧’가 곧 ‘瘧’이라 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瘧’와 ‘瘧’은 같은 것이며, 『金匱要略』에는 모두 ‘瘧’로 쓴 것으로 思料된다.

産後의 鬱冒는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침침한 것으로 神病에 해당되며²¹⁾, 지금의 産褥熱이 이에 해당된다.²²⁾ 그 原因은 産後에 出血로 血虛하고 汗出로 亡陽이 된 상태에서 寒邪가 侵犯하여 발생되므로 鬱冒의 原因을 原文에 “寒多”라고 하여 단지 血虛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強調하였다.

“寒多”에 대하여 原因인 外感寒邪의 侵犯으로 대부분 注釋하였으나, 伍卓琪는 産後鬱冒가 産褥熱에 해당되며 그 症狀에 ‘寒戰’이 있기 때문에 症狀으로 보아 차이가 있다. 産褥熱 또한 病原菌의 侵入이 原因이므로 이를 外感寒邪의 侵犯으로 理解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또한 眼前生花하고 심하면 가슴이 답답하여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입을 악무는 産後의 眩暈과 유사하여 『綱目』에는 산후의 鬱冒와 眩暈을 하나로 설명하였으나, 『寶鑑』에는 이를 구분하여 따로 서술하였다. 『綱目』은 症狀이 類似하기 때문에 함께 서술하였으나, 『寶鑑』은 産後의 鬱冒는 “血虛多汗出”한 상태에서 寒邪를 外感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면에 産後의 眩暈은 外感이 없이 발생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思料된다.

産後의 便秘는 産後에 津液이 消耗되어 大便이 燥

二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686. “血大虛則衛外之陽因而不固하여 必多汗而腠理疏也라 疏則風易入之하고 血既不足以養筋하며 乃風入又足以燥其血液 故로 令病瘧이라”

17) 伍卓琪. 金匱婦科研究. 臺北. 國立中醫藥研究所. 1997. p.39.

18) 伍卓琪. 金匱婦科研究. 臺北. 國立中醫藥研究所. 1997. p.39.

19) 伍卓琪. 金匱婦科研究. 臺北. 國立中醫藥研究所. 1997. p.39. 沈堯封曰 “仲景論腰背反張爲瘧에 無汗者는 名剛瘧이니 主以葛根湯이오 有汗者는 名柔瘧이니 主以桂枝葛根湯이라 桂枝湯은 乃治風主方 故로 有汗之瘧은 屬風하고 葛根湯中에 用麻黃하니 麻黃은 乃散寒主藥 故로 無汗之瘧屬寒이라 有汗柔瘧에 更有二種하니 一則因虛而受外來之風이오 一則血虛筋急하고 竝無外感之風이라 有風者는 雖汗出必然惡風하니 主以華元化愈風散이오 無風者는 必不惡風하니 純宜補血이라”

20) 許俊.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3. p.621. “治産後瘧 血氣大虛 不宜發表 但用防風當歸散最妙”

21) 尤怡 著. 金匱要略心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68. “鬱冒는 神病也라 亡陰血虛에 陽氣遂厥 而寒復鬱之 則頭眩而目昏也라”

22) 伍卓琪. 金匱婦科研究. 臺北. 國立中醫藥研究所. 1997. pp.39-40.

結된 것이다. 이는 津液의 病으로 胃는 津液을 간직하였다가 陽經으로 흘러 적셔주는데 津液이 消亡되면 大腸을 부드럽게 적셔주지 못하여 便秘가 된 것이다.

産後의 便秘는 흔히 나타나는 症狀으로서 독립된 질병이 아니다. 産後의 便秘에는 두 가지 原因이 있으니 첫째 産後에 出血過多로 腸胃의 津液이 부족한 것과, 둘째 産後에 腹壁이 弛緩되어 直腸이 蠕動運動이不振하기 때문이다. 비록 본 條文에 便秘의 處方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虛證에는 加減八珍湯을, 實證에는 麻仁丸을, 陽明實證을 확신할 수 없으면 大承氣湯을 함부로 쓸 수 없다.²³⁾

본 조문은 産後의 痙證, 鬱冒, 便秘는 分娩으로 인하여 血虛 多汗出하기 때문인 것으로, 血虛하고 汗을 많이 흘린 상태에서 中風을 겸하면 痙證이, 亡血復汗 寒多를 겸하면 鬱冒가, 亡津液 胃燥를 겸하면 便秘가 쉽게 생기는 것으로 보았다. 後代의 産後治法은 이러한 觀點에 영향을 받아 産後에 비록 雜症이 있더라도 免疫力 低下로 인하여 發生되므로 補氣血을 최우선의 治法으로 삼은 것으로 思料된다.

第 2條. 鬱冒와 便秘의 證治

【原文】

産後鬱冒는 其脈微⁽¹⁾弱⁽²⁾하며 不能食⁽³⁾하고 大便反堅하고 但頭汗出이라 所以然者는 血虛而厥⁽³⁾하야 厥而必冒라 冒家欲解에 必大汗出이어늘 以血虛下厥⁽⁴⁾하야 孤陽上出⁽⁵⁾故로 頭汗出⁽²⁾이라 所以産婦喜汗出者는 亡陰血虛하야 陽氣獨盛故로 當汗出이라 陰陽乃復⁽⁶⁾이라 大便堅하고 嘔不能食엔 小柴胡湯⁽⁷⁾主之⁽³⁾라 方見嘔吐中이라

【校勘】

1) 不能食: 『脈經·卷九 平産後諸病鬱冒中風發熱煩嘔下利證第三』, 『醫統本』, 『桂林古本』, 『心典』에는 “嘔不能食”으로 되어 있다.

2) 故頭汗出: 『脈經』에는 “故但頭汗出”로, 『桂林古本』에는 “故頭汗出也”로 되어 있다.

3) 大便堅 嘔不能食 小柴胡湯主之: 『脈經』에는 “其

大便堅 若嘔不能食者 小柴胡湯主之 病解能食”으로, 『桂林古本』에는 “大便堅 嘔不能食者”로 되어 있다.

【註釋】

(1) 微: 微脈. 脈의 형체가 가늘고 浮沈에 모두 가늘고 힘이 없다.²⁴⁾

(2) 弱: 弱脈. 매우 軟弱하면서 沈細한 脈象이다.²⁵⁾

(3) 厥: 여기서의 ‘厥’은 ‘上逆’의 뜻이다. 氣가 下에서 上으로 逆行하는것

(4) 下厥: 下肢厥冷을 뜻한다.²⁶⁾

(5) 孤陽上出: 陽氣가 偏盛하여 위로 치밀어 오르거나 혹은 虛熱이 위로 어지럽히는 것을 뜻한다.²⁷⁾

*孤陽: 陽만있고 陰이없는것

(6) 復: 興復, 회복할 복

(7) 小柴胡湯: 柴胡半斤 黃芩三兩 人蔘三兩 甘草三兩 半夏半斤 生薑三兩 大棗十二枚. 이상 일곱 가지 약제를 물 一斗二升을 넣고 六升이 될 때까지 끓여서 찌꺼기를 버리고 다시 三升이 될 때까지 달여서 一升씩 하루에 세 번 따뜻하게 복용한다.

【國譯】

産後의 鬱冒는 脈微弱하며 음식을 먹지 못하고 大便이 도리어 굳고 頭部에서만 汗이 난다. 그러한 까닭은 血虛하여 陽氣가 위로 치밀어 오르면 반드시 鬱冒가 된다. 鬱冒병을 앓은 환자가 나올 때에는 반드시 汗을 많이 흘리거늘 血虛하여 아래에서 陽氣가 치밀어 올라 偏盛된 陽氣가 위로 나오므로 頭部에서 汗이 난다. 産後에 汗이 잘 흘리는 까닭은 陰氣가 없어지고 血虛하여 陽氣만이 왕성하기 때문에 汗이 잘 나는 것이니 汗을 흘리면 陰氣와 陽氣가 回復되어 낫는다. 大便이 굳고 嘔吐로 음식을 먹지 못할 때에는 小柴胡湯으로 치료한다. 處方은 「嘔吐噦下利病脈證治第十七」에 있다.

24) 成百萬.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0. p.100.

25) 成百萬.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0. p.101.

26)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譯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635. “血虛則陰不能雜陽而下厥 厥者虛也 寒也”

27)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譯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635. “陽氣偏盛上逆或虛熱上擾”

23) 伍卓琪. 金匱婦科研究. 臺北. 國立中醫藥研究所. 1997. p.40.

【考察】

産後鬱冒은 “所以然者 血虛而厥 厥而必冒”라고 밝혔다듯이 血虛하여 陰과 陽이 調和를 이루지 못하여 陽氣가 偏盛하여 위로 치밀어 올라서 頭暈目眩하며, 脈이 微弱한 것은 鬱冒가 비록 外邪의 侵犯을 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根本은 虛하기 때문이며²⁸⁾, 飮食을 먹지 못하는 것은 胃氣가 和合되지 않기 때문이며, 大便이 堅硬한 것은 腸胃의 津液이 乾枯하기 때문이며²⁹⁾, 頭部에서 땀이 나는 것은 亡陰血虛하여 偏盛된 陽氣가 위로 치밀어 오르고 치밀어 오르는 陽氣를 따라 津液이 올라가기 때문이다³⁰⁾. 産後鬱冒은 현대의 産褥熱에 해당되며, 産道의 創傷面에 病原菌의 침입이 原因이다. 主要症狀은 下腹部가 찢러듯이 아파서 손으로 만질 수 없고 生殖器에 灼熱感이 있고 惡露分泌에 障碍가 있으며 全身症狀으로는 寒戰高熱頭痛四肢痠疼·煩渴懊懣·多汗 및 便秘가 있다.³¹⁾

産婦가 땀을 잘 흘리는 이유는 亡陰血虛하고 陽氣만 홀로 偏盛하기 때문이다. ‘大汗出’하는 것으로서 産後鬱冒의 治法을 삼은 것은 땀을 내어 邪氣를 除去함으로써 偏盛된 陽氣를 減弱시킨 뒤에 陰과 陽이 均衡을 이루게 하는 것이니 ‘陽을 덜어 陰과 均衡을 이루게 한다(損陽就陰)’는 原理이다.³²⁾ 또한 ‘大汗出’은 全身에서 땀을 내는 것으로 鬱冒의 症狀에 “但頭汗出”이라고 한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다.³³⁾ 그러나 땀을 내는 것이 産後鬱冒의 根本治法이라 할 수는 없고 一時的인 治法에 불과하다. 땀을 내면 偏

盛된 陽氣가 비록 減弱되어 陰陽이 均衡을 이루어 잠시 鬱冒가 풀리기는 하지만 陰陽互根하기 때문에 陽氣가 虛하게 되면 陰도 더욱 虛하게 되어 다시 鬱冒가 더욱 甚하게 된다. 그러므로 産後에 血虛하여 陽이 偏盛된다고 해서 滋陰降火하거나 寒涼한 藥材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³⁴⁾. 産後鬱冒은 血虛陰虧하고 表에 寒邪가 鬱結된 것이니 治療는 먼저 表部의 寒邪를 除去하고 이어서 養血益陰하여야 한다. 다만 表部의 寒邪를 除去하기 위하여 發汗시키는데 지나치게 發汗시키거나 오랫동안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津液을 顧慮하여야 한다.³⁵⁾ 본 條文에 小柴胡湯이 主治方으로 제시되어 있다. 小柴胡湯은 『金匱要略嘔吐下利病脈證治第十七』에 “嘔而發熱者 小柴胡湯主之”라 하였는데 嘔吐를 하면서 發熱이 있는 것은 비록 小柴胡湯 본래의 目的은 아니지만 少陽經證에 속하고 또한 産後鬱冒의 主症狀이 頭暈目眩이기 때문에 小柴胡湯으로 表邪를 훌어버리고 補虛和中的 目的으로 사용한 것이다. 小柴胡湯의 柴胡와 黃芩은 清熱하고, 半夏와 生薑은 散逆止嘔하며 人參, 甘草, 大棗는 緩中補虛한다³⁶⁾. 그러나 鬱冒의 症狀이 大便堅, 嘔不能食의 증상이 있더라도 舌苔가 있고 땀을 흘리지 않아야 하며 形氣가 虛하지 않아야 사용할 수 있으며, 땀을 흘리면 柴胡를 減量하고, 發熱의 증상이 없으면 黃芩을 減量하여야 하며, 嘔吐가 있으면 生薑과 半夏를 倍로 增量하고, 虛하면 人參을 倍로 增量하여 사용한다.³⁷⁾ 또한 본 條文에는 産後鬱冒와 便秘 모두에 小柴胡湯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

28) 尤怡 著. 金匱要略心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68. “鬱冒雖有客邪而 其本則爲裏虛 故其脈微弱也라”
 29) 吳謙.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646. “不能食者는 是胃氣不和應得之候也 오 大便反堅者는 是腸胃枯乾應得之病也라”
 30) 尤怡 著. 金匱要略心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68. “但頭汗出은 津氣上行而不下逮之象이니 所以然者는 亡陰血虛하여 孤陽上厥而津氣從之也라”
 31) 伍卓琪. 金匱婦科研究. 臺北, 國立中醫藥研究所. 1997. pp.39-40.
 32) 尤怡 著. 金匱要略心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68. “産婦新虛하니 不宜多汗而此反喜汗出者는 血去陰虛하여 陽受邪氣而獨盛하고 汗出則邪去하여 陽弱而後與陰陽和하니 所謂損陽就陰이 是也라”
 33)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6. p.636.

34) 魏荔澗 撰. 金匱要略方論本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272. “胃家之欲解는 乃暫解오 非眞解라 必大汗出하니 大汗出則陽益虛하여 雖暫解나 亦必旋復得厥하여 漸致陽愈微陰愈盛하여 下血分純陰無陽而下厥하고 上氣分孤陽離陰而上逆라 … 概可妄言産後血虛에 滋陰降火이라하고 混用寒涼以生他變乎”
 35)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譯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93. p.637.
 36) 李彥 著. 金匱要略廣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58. “用柴胡黃芩하여 以清熱하고 半夏生薑하여 以散逆止嘔하고 人參甘草大棗하여 以緩中補虛也라”
 37) 吳謙.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643. “大便堅, 嘔不能食엔 用柴胡湯이나 必其人舌有苔身無汗하고 形氣不衰者라야 始可오 … 若有汗하면 當減柴胡하고 無熱하면 當減黃芩하고 嘔則當倍姜半夏하고 虛則當倍人參이라”

나 後代의 『寶鑑』에는 產後鬱冒에 全生活血湯을, 產後大便秘結에는 蘇麻粥 또는 滋腸五仁丸을 제시하고 있다.

第 3條. 鬱冒病解後의 發熱

【原文】

病解¹⁾能食이라가 七八일에 更¹⁾發熱者는 此爲胃實²⁾이니 大承氣湯³⁾主之라 方見瘧中이라

【校勘】

1) 病解：『桂林古本』에는 “鬱冒病解”로 되어 있다.

【註釋】

(1) 更：再也, 다시 갠

(2) 胃實：胃腸에 邪氣가 鬱結된 陽明腑實證이다.³⁸⁾ 症狀는 潮熱, 譫語, 腹滿痛, 不大便, 脈沈實 등이 나타나고, 承氣湯類로 치료한다.³⁹⁾

(3) 大承氣湯：大黃四兩酒洗 厚朴半斤去皮炙 枳實五枚炙 芒硝三合 이상의 네 가지 藥材에서 먼저 厚朴과 枳實 두 가지를 물 一斗로 五升이 되도록 달여서 찌꺼기를 버리고 그 물에 다시 大黃을 넣고 二升이 되도록 달인 후, 다시 芒硝를 넣고 살짝 한두 번 끓인 후, 두 번에 나누어 따뜻하게 복용하며, 泄瀉가 나면 服用을 그친다.

【國譯】

鬱冒가 나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가 7-8일 뒤에 다시 熱이 나면 이는 胃實때문이니 大承氣湯으로 主治한다. 處方은 「瘧濕喝病脈證治第二」에 있다.

【考察】

鬱冒에 음식을 먹지 못하고 大便이 나오지 않는 것을 小柴胡湯으로 치료하여 병이 나왔으나 7-8일 뒤에 다시 熱이 나는 것은 남은 邪氣가 완전히 除去되지 않았는데 음식을 먹는데 節度가 없어서 邪氣가

다시 旺盛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陽明腑實證이므로 大承氣湯을 써서 腸의 熱邪를 滌蕩하여 치료한다.

다만 產後에는 대개 虛하고 大承氣湯은 苦寒한 藥物로써 攻下하는 處方이므로 產後에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精確하게 辨證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危症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產婦의 形氣가 모두 實하고 胃가 強해서 飲食을 먹을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나⁴⁰⁾ 단 熱이 가라앉으면 더 쓸 필요는 없다.

第 4條. 虛寒腹痛

【原文】

產後¹⁾ 腹中疝¹⁾痛²⁾엔 當歸生薑羊肉湯主之³⁾니 并治腹中寒疝²⁾虛勞不足이라

當歸生薑羊肉湯³⁾方 見寒病中이라

【校勘】

1) 產後：『脈經·卷九 平產後諸病鬱冒中風發熱煩嘔下利證第三』에는 “婦人產後”로 되어 있다.

2) 腹中疝痛：『桂林古本』에는 “腹中疝痛 若虛寒不足者”로 되어 있다.

3) 當歸生薑羊肉湯主之：『脈經』에는 “可與當歸羊肉湯”으로 되어 있다.

【註釋】

(1) 疝痛：배가 쥐어짜듯 아픈 증상 *疝：腹中急痛, 뱃속 급히 아플 교

(2) 寒疝：寒邪가 內部에서 凝結되어 발생되는 極烈한 腹痛을 가리키며 주된 症狀는 少腹部的 極烈한 痛症과 汗出, 四肢冷, 脈沈緊이다.

(3) 當歸生薑羊肉湯：當歸三兩 生薑五兩 羊肉一斤 이상의 세 가지 藥材를 물 八升으로 三升이 되도록 달여서 七合씩 복용하되 하루에 세 번 服用한다. 만약 寒邪가 많은 경우에는 生薑을 一斤이 되도록 加하고, 배가 아프면서 嘔吐를 하는 경우에는 橘皮二兩과 白朮一兩을 加한다. 生薑을 加할 경우에는 물 五升을

38)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3. p.638.

39) 劉渡舟. 傷寒論辭典. 北京. 解放軍出版社. 1988. p.207.

40) 吳謙.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646. “必其人形氣俱實하고 胃強能食者라야 始可也라”

더 넣어서 三升이 되도록 달여서 二合씩 服用한다.

【國譯】

産後에 배가 쥐어짜듯 아프면 當歸生薑羊肉湯으로 主治하니 아울러 腹中寒疝과 虛勞不足을 치료한다. 處方은 「腹滿寒疝宿食病脈證治第十」에 있다.

【考察】

「腹滿寒疝宿食病脈證治第十」에 “寒疝 腹中痛及脇痛裏急者 當歸生薑羊肉湯主之”라 하였으니 當歸生薑羊肉湯은 血虛로 인한 寒疝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血虛하면 脈을 길러주지 못하고 寒邪가 많으면 脈이 萎縮되므로 배와 옆구리가 당기면서 아프다.⁴¹⁾ 따라서 治法은 正氣를 보충하고 길러주는 것이 우선이고 寒邪를 제거하는 것이 다음이다.⁴²⁾ 當歸生薑羊肉湯을 血虛寒疝에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産後에 血虛하여 발생되는 腹中疝痛 또한 當歸生薑羊肉湯으로 치료하였다.

産後腹痛의 一種인 疝痛의 痛症形態에 대하여 徐彬 등은 “緩緩痛”(은근하게 아픈 것)의 형태로, 尤怡 등은 “腹中急痛”의 형태로 묘사하였는데, 産後의 腹痛은 出血過多와 寒邪로 말미암아 子宮에 極烈한 收縮이 발생되므로 陣痛이 強烈하다. 이러한 陣痛이 發作할 때에는 子宮部位가 단단하고 少腹部가 脹滿하여 손을 대지 못하지만 발작이 그치면 子宮部位가 柔軟하고 손으로 만져도 조금도 아프지 않는 것⁴³⁾으로 미루어 볼 때 “腹中急痛”의 형태로 사료된다.

當歸生薑羊肉湯의 當歸는 通經活血하고, 生薑은 溫中散寒하고, 羊肉으로 補하는데⁴⁴⁾ 羊肉이 君藥이 되어 血虛를 補하고, 當歸의 活血하는 작용에 힘입어 血分이 막힌 것을 疏通시키고, 生薑의 銳利한 氣로

氣分에 壅滯된 것을 宣通시키니 疏通되면 아프지 않게 된다.⁴⁵⁾

第 5條. 氣鬱血滯腹痛

【原文】

産後腹痛에 煩滿不得臥하면 枳實芍藥散主之¹⁾라

枳實芍藥散方

枳實燒¹⁾ 令黑호대 勿太過라 芍藥等分 右二味를 杵²⁾爲散하야 服方寸匕²⁾(³⁾호대 三日服이라 竝主癰膿하니 以麥粥下之³⁾라

【校勘】

- 1) 産後腹痛 煩滿不得臥 枳實芍藥散主之：『桂林古本』에는 “産後腹痛煩滿不得臥 不可下也 宜枳實芍藥散和之”로 되어 있다.
- 2) 方寸匕：『桂林古本』에는 “方寸匙”로 되어 있다.
- 3) 三日服 竝主癰膿以麥粥下之：『桂林古本』에는 “日三服 麥粥和下之”로, 『心典』에는 “三日服 竝主癰膿 大麥粥下之”로 되어 있다.

【註釋】

- (1) 燒：燒存性. 한약 법제 방법의 하나. 한약재의 약성이 남게 태우는 것을 말하는데, 겉은 숯처럼 거 멀지만 속은 누런색이 나도록 태우는 것이다. 주로 止血劑들을 燒存性으로 법제하여 사용한다.(여기서는 止血의 目的보다는 緩和시킬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 (2) 杵：春杵, 공이 저
- (3) 方寸匕：가루약의 量을 計量할 수 있게 만들어 쓰던 약 숟가락의 하나. 사방 1치 되는 약 숟가락을 말한다.

【國譯】

産後에 배가 아프고 煩滿하며 잠을 잘 수 없으면 枳實芍藥散으로 主治한다.

41) 尤怡 著. 金匱要略心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30. “血虛則脈不榮하고 寒多則脈絛急 故로 腹脇痛而急也라”
 42) 吳謙.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538. “養正爲本이오 散寒爲次라”
 43) 伍卓琪. 金匱婦科研究. 臺北. 國立中醫藥研究所. 1997. p.42.
 44) 李延 著. 金匱要略廣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p.186. “當歸通經活血하고 生薑溫中散寒하고 … 用羊肉補之라”

45) 陳修園. 金匱方歌括. 臺北. 五洲出版社. 1984. p.59. “方中的 當歸는 行血分之滯而定痛하고 生薑은 宣氣分之體而定痛이라”

枳實芍藥散方

枳實 燒存性으로 하되 지나치게 태우지 말 것 芍藥 같은 量

이상의 두 가지 藥材를 공이로 빵아서 가루를 만들어 方寸匕만큼 하루에 세 번 服用한다. 또한 癰腫을 치료할 때에는 大麥粥으로 服用한다.

【考察】

본 條文은 産後에 氣鬱血滯된 腹痛의 證治를 서술하였다. 産後의 腹痛에 煩滿으로 잠을 못자는 것은 氣結血凝하여⁴⁶⁾ 熱이 된 것이므로⁴⁷⁾ 枳實로써 기가 막힌 것을 깨뜨리고 芍藥으로 腹痛을 緩和시키기⁴⁸⁾ 위하여 行氣和血하는 枳實芍藥散을 主治方으로 삼았다.

枳實은 燒存性으로 태운 것은 血로 들어가 積滯된 것을 運行시키기 위함이며, 大麥粥으로 服用하는 것은 大麥粥(보리죽)이 滑潤하여 血이 積滯된 것에 마땅하고 또한 胃氣를 增益하기 때문이다.⁴⁹⁾

産後腹痛에 煩滿하지 않은 것은 裏虛證에 속하고, 煩滿하고 잠을 못자는 것은 裏實證에 속하므로⁵⁰⁾ 앞의 條文의 경우에는 當歸生薑羊肉湯을, 본 條文의 경우에는 枳實芍藥散으로 主治方을 삼았다.

第 6條. 瘀血腹痛

【原文】

師曰 産婦腹痛은 法當以枳實芍藥散¹⁾이나 假令不愈者는 此爲腹中有乾血²⁾着³⁾臍下²⁾니 宜下瘀血湯主之라 亦主經水不利³⁾³⁾

下瘀血湯方

46) 吳謙,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647. “氣結血凝而痛이라”

47) 尤怡 著, 金匱要略心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68. “鬱血而成熱이라”

48) 吳謙,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647. “用枳實破氣結하고 芍藥調腹痛이라”

49) 魏荔澍 撰, 金匱要略方論本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274. “枳實燒黑者는 入血中行積也라 加以芍藥走血分而血凝可開散矣오 以麥粥下之者는 卽大麥粥이 取其滑潤宜血하며 且有益胃氣也라”

50) 吳謙,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647. “産後腹痛에 不煩不滿은 裏虛也오 今腹痛에 煩滿不得臥는 裏實也라”

大黃二兩⁴⁾ 桃仁二十枚⁵⁾ 蟪蟲⁴⁾ 二十枚 熬⁵⁾ 去足⁶⁾ 이라

右三味를 末之하여 煉蜜⁶⁾和⁷⁾爲四丸⁷⁾하고 以酒一升으로 煎一丸⁸⁾하여 取八合⁸⁾하여 頓服⁶⁾之면 新血下如豚肝⁹⁾이라

【校勘】

1) 師曰 産婦腹痛 法當以枳實芍藥散 : 『脈經·卷九 平産後諸病鬱冒中風發熱煩嘔下利證第三』에는 “師曰 産婦腹痛 煩滿不得臥 法當枳實芍藥湯”으로 되어 있다.

2) 此爲腹中有乾血着臍下 : 『桂林古本』에는 “必腹中有瘀血著臍下也”로 되어 있다.

3) 宜下瘀血湯主之 亦主經水不利 : 『桂林古本』에는 “下瘀血湯主之”로 되어 있다.

4) 大黃二兩 : 『醫統本』, 『桂林古本』, 『心典』에는 “大黃三兩”으로 되어 있다.

5) 桃仁二十枚 : 『桂林古本』에는 “桃仁二十枚去皮尖”으로 되어 있다.

6) 熬去足 : 『桂林古本』에는 “去足”으로 되어 있다.

7) 煉蜜和爲四丸 : 『桂林古本』에는 “煉蜜和丸”으로 되어 있다.

8) 煎一丸 取八合 : 『桂林古本』에는 “煮取八合”으로 되어 있다.

9) 新血下如豚肝 : 『桂林古本』에는 “當下血如豚肝”으로 되어 있다.

【註釋】

(1) 乾血 : 瘀血이 오래되어 변화해서 생긴 병리적 산물. 陳久性 瘀血과 類似的한 것으로 일반의 瘀血보다 더욱 頑固하여 除去하기 더욱 어렵다.⁵¹⁾

(2) 着 : 附也, 붙을 착

(3) 經水不利 : 經閉. 月經이 있어야 할 시기에 월경이 없는 것.

(4) 蟪蟲 : 쥐머느리다. 地鼈 또는 土鼈이라고도 한다. * 蟪 : 鼠婦, 쥐머느리 자

(5) 熬 : 乾煎, 볶을 오

51) 陳紀藩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679. “由瘀血久留進一步演變而成的病理性產物이라 類似於陳舊性瘀血하고 較一般瘀血更爲頑固하여 難於攻逐이라”

- (6) 煉蜜 : 熟淸. 중탕하여 끓인 꿀
- (7) 和 : 調味, 섞을 화
- (8) 頓服 : 많은 량의 약을 단번에 마시는 것.

【國譯】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産婦腹痛에는 보통 枳實芍藥散으로 치료하나, 만약 낫지 않으면 腹中에 乾血이 있어 臍下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니 下瘀血湯을 主治方으로 써야한다. 또한 經水不利도 치료한다.

下瘀血湯方

大黃 二兩 桃仁 二十枚 蟪蟲 二十枚 볶아서 다리를 제거한 것

이상의 세 가지 藥材를 가루를 내어 煉蜜에 반죽하여 四丸을 만들고 술 一升에 一丸을 달여서 八合을 만들어 단번에 마시면 돼지의 肝과 같은 瘀血이 나온다.

【考察】

본 條文은 産後에 瘀血이 胞宮에 鬱結되어 發生되는 腹痛의 證治를 敍述하였다.

앞의 條文과 같이 産後에 氣가 맺히고 血이 凝滯되어 熱이 발생되고 이 熱에 의하여 腹痛이 나타나는 경우에 枳實芍藥散으로 主治하나, 枳實芍藥散으로 치료하여도 낫지 않는 경우는 臍下에 乾血이 있기 때문이다. '乾血'은 陳久性的 積血으로⁵²⁾ 瘀血이 오래되어 변화해서 생긴 病理的 産物이며, '臍下'는 病位로서 少腹部를 가리킨다.⁵³⁾ 이러한 乾血이 臍下에 附着되는 것은 少腹部에 異常이 있는 것이며 少腹部는 胞宮이 血을 간직하는 곳이기 때문에 症狀은 産後에 少腹部가 찌르듯이 아프고 아파서 손을 대지 못하고 만져 보면 간혹 덩어리가 만져지고 痛症이 甚하다. 이러한 腹痛은 단순히 行氣和血하는 枳實芍藥散으로는 藥力이 모자라고 攻堅破積하는 大黃과 같은 藥劑가 아니면 胞宮에 있는 乾血을 除去할 수 없으므로⁵⁴⁾ 下瘀

血湯을 主治方으로 삼았다.

下瘀血湯의 大黃은 苦味로써 實한 것을 瀉하고, 桃仁은 苦味로써 瘀血을 運行시키고, 蟪蟲은 鹹味로써 血分으로 들어간다.⁵⁵⁾ 그러나 下瘀血湯은 血實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血虛한 경우에는 服用을 忌하여야 한다.⁵⁶⁾

丸을 만들 때 煉蜜을 사용하는 것은 大黃·桃仁·蟪蟲의 성질이 猛烈하여 藥性이 급격하게 발생되어 上焦와 中焦를 損傷시키는 것을 염려해서이며, 술에 달여서 단번에 마시는 것은 下部를 補하여 上部를 다소 病의 危急한 것을 制御하는 것이고 또한 疾病을 제거하는데 藥力이 不足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⁵⁷⁾ 고 말한 것처럼 술의 힘을 빌어서 瘀血을 治療하고자 했다.

第 7條. 惡露不盡腹痛

【原文】

産後¹⁾七八日に 無太陽證⁽¹⁾하고 少腹堅痛하면 此는 惡露⁽²⁾不盡⁽²⁾요 不大便 煩躁⁽³⁾ 發熱하고 切脈⁽⁵⁾微實⁽⁴⁾하고 再倍發熱하고 日晡⁽⁶⁾時煩躁⁽²⁾者가 不食하고 食則譫語⁽⁶⁾라가 至夜即愈면 宜大承氣湯主之⁽⁴⁾니 以熱在裏에 結在膀胱⁽⁹⁾일새라 方見産病中⁽⁶⁾이라

【校勘】

- 1) 産後 : 『脈經·卷九 平産後諸病鬱冒中風發熱煩嘔下利證第三』에는 “婦人産後”로 되어 있다.
- 2) 此惡露不盡 : 『桂林古本』에는 “此惡露不盡也”로 되어 있다.
- 3) 煩躁 : 『醫統本』에는 “煩燥”로 되어 있다.
- 4) 不大便 煩躁 發熱 切脈微實 再倍發熱 日晡時煩

者는 非潤燥蕩滌不能去也니 芍藥枳實不能治오 須用大黃蕩遂之라”

52) 伍卓琪. 金匱婦科研究. 臺北. 國立中醫藥研究所. 1997. p.43. “乾血者는 陳久性之積血也라”
 53) 張玉清 編著. 胡庚辰 評注. 金匱要略.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0. p.427. “臍下는 病位니 指少腹이라”
 54) 趙以德, 周揚俊. 中國醫學大成·傷寒金匱分冊 金匱玉函經二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687. “血之乾燥凝

55) 李炡 著. 金匱要略廣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87. “大黃은 苦以瀉實하고 桃仁은 苦以行瘀하고 蟪蟲은 鹹以走血이라”
 56) 李炡 著. 金匱要略廣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87. “要惟血實者宜之오 血虛者忌服이라”
 57) 尤怡 著. 金匱要略心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69. “用蜜丸者는 緩其性·不使驟發하야 恐傷上二焦也오 酒煎頓服者는 補下治上하야 制以急이요 且去疾惟恐不盡也라”

躁者 不食 食則譫語 至夜即愈 宜大承氣湯主之：『脈經』에는 “不大便四五日 趺陽脈微 實再倍 其人發熱 日晡所煩躁者 不能食 譫語 利之則愈 宜承氣湯”으로, 『桂林古本』에는 “若不大便 煩躁 發熱 脈微實者 宜和之 若日晡所煩躁 食則譫語 至夜即愈者 大承氣湯主之”로 되어 있다.

5) 以熱在裏 結在膀胱：『醫統本』·『心典』에는 “熱在裏 結在膀胱也”로 되어 있다.

6) 方見瘧病中：『醫統本』에는 “見瘧病中”으로 되어 있다.

【註釋】

(1) 太陽證：太陽表證의 기본이 되는 頭項強痛 惡寒 脈浮緊 등의 症狀.

(2) 惡露(악로)：産後에 子宮을 비롯하여 性器에서 나오는 이슬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解産한 뒤 날이 감에 따라 나오는 量과 빛깔이 변하며 解産한 뒤 약 3週日이 되면 다 없어진다. *惡：糞穢, 더러움 악

(3) 切脈：診脈의 뜻. *切：按也, 진맥할 절

(4) 實：實脈. 浮·中·沈에서 손가락을 들거나 누르거나 모두 힘이 있는 脈象이다.⁵⁸⁾

(5) 日晡：해질 녘. 晡는 申時로, 오후 3시~5시임.

(6) 譫語：정신을 잃고 앞뒤가 맞지 않게 말하는 데 말소리는 힘 있고 푹푹하다.

【國譯】

産後 7-8일에 頭項強痛惡寒脈浮緊 등의 太陽表證이 없으면서 少腹部가 단단하고 아픈 것은 惡露가 완전히 排出된 것이 아니고, 大便을 보지 못하고 煩躁하며 熱이 나고 脈을 짚어보면 微實하고 日晡에 熱이 더욱 심하고 煩躁가 나는 사람이 음식을 먹지 못하며 만약 음식을 먹으면 譫語를 하다가 한밤중에 이르러 병세가 호전되면 大承氣湯을 主治方으로 삼으니 熱이 裏部에 있고 瘀血이 膀胱에 있기 때문이다. 處方은 「瘧濕喘病脈證治第二」에 있다.

【考察】

본 條文은 尤怡가 “下部에 瘀血이 結滯되었을뿐만 아니라 또한 熱邪가 中焦에 모인 것이다.”⁵⁹⁾고 하였듯이 産後에 瘀血과 陽明裏實證을 兼한 證治를 서술하였다.

産後 7~8日이 지나서 頭項強痛惡寒脈浮緊 등의 太陽病證이 없고 단지 少腹部만 단단하고 아픈 것은 肝이 血을 간직하고 少腹部는 肝經의 部位이므로 惡露의 排出이 未盡하여 瘀血이 少腹部에 鬱結되어 단단하고 아픈 것이다.⁶⁰⁾ 또한 不大便·煩躁發熱·脈實의 症狀은 胃實證이며, 日晡는 陽明이 旺盛한 時間이므로 다른 時間에 비하여 煩躁가 더욱 甚하니 이로써 胃熱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飲食이 胃에 들어가면 陽에서 氣가 長大하니 飲食을 먹어서 胃에 있는 熱邪를 도우면 譫語를 하게 되고, 밤이 되면 陽明氣가 衰退하므로 譫語가 나아지니 이로써 또한 胃熱임을 알 수 있다.⁶¹⁾

따라서 “熱在裏 結在膀胱”의 文句는 陽明에 熱邪가 있고, 瘀血이 少腹部에 있음을 뜻하니 尤怡가 “下部에 瘀血이 結滯되었을뿐만 아니라 또한 熱邪가 中焦에 모인 것이다.”⁶²⁾고 하였다.

본 條文에 대하여 李紘은 “이 一節 안에 두 證이 있으니 하나는 太陽蓄血證이고 또 하나는 陽明裏實證이다. 古人들의 文法이 서로 섞여 엉켜져서 辨別하기 어렵다.”⁶³⁾고 하였고, 吳謙은 “熱在裏結在膀胱”의 文句는 ‘惡露不盡’의 아래에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大承氣湯이 膀胱의 瘀血을 下한다는 이치는 없으

59) 尤怡 著. 金匱要略心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69. “蓋謂不獨血結於下 而亦熱聚於中也라”

60) 李紘 著. 金匱要略廣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p.188-189. “少腹疼痛者是以肝藏血하고 少腹爲肝經部分 故로 血必結於此 則堅痛亦在此하니 此는 惡露不盡이라”

61) 尤怡 著. 金匱要略心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69. “不大便 煩躁 發熱 脈實則胃之實也 日晡爲陽明旺時이니 而煩躁甚於他時하니 又胃熱之驗也라 食氣入胃하면 長氣於陽하고 食而助胃之熱則譫語라가 至夜陽明氣衰而譫語愈하니 又胃熱之驗也라”

62) 尤怡 著. 金匱要略心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69. “蓋謂不獨血結於下 而亦熱聚於中也라”

63) 李紘 著. 金匱要略廣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87. “此 一節에 俱兩證在內하니 一是太陽蓄血證이오 一是陽明裏實證이라 因古人文法錯綜 故로 難辨也라”

58) 成百萬.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0. p.100.

니 이는 잘못 傳寫된 것이다. 또한 ‘再倍’ 二字도 衍文이다.”⁶⁴⁾ 하면서 또한 “產後 七八日에 蓄血裏證이 있고 太陽表證이 없으면 傷寒太陽證이 經脈을 따라 瘀熱이 裏部로 들어간 病이 아니고 곧 產後에 惡露의 排出이 未盡하여 熱이 膀胱에 結聚된 病임을 알 수 있으니 마땅히 下瘀血하는 것이 옳다. 만약 大便을 보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譫語하고 煩躁發熱하고 日晡에 더욱甚하다가 밤이 되어 나오면 이는 胃實의 病이지 惡露의 排出이 不盡하여 病이 된 것이 아니다. 日晡에 더욱 심하다가 밤이 되면 낮는 것으로써 病이 血分에 있지 않고 胃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大承氣湯으로 下한다.”⁶⁵⁾ 고 하여 본 條文을 두 證으로 구분하여 尤怡 등이 본 條文을 瘀血과 陽明裏實證을 兼한 것과는 달리 보았다.

두 가지 意見 모두에 다 합당한 이유가 있으나 뒤의 8條와 9條가 產後의 太陽中風證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고, 본 條文에 “無太陽證”이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8條와 9條와 마찬가지로 產後의 太陽中風證에 다른 病證을 兼한 것을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切脈微實”의 ‘微’는 實脈의 程度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제시된 治方이 大承氣湯이고 大承氣湯을 사용하는 경우의 脈은 대개 沈實 또는 沈遲有力하므로 微脈이라기 보다는 程度를 의미하는 것으로 思料된다.

第 8條. 產後中風の 陽旦湯證

【原文】

產後風이 續⁽¹⁾之¹⁾數十日不解야 頭微痛 惡寒 時

時有熱 心下悶²⁾ 乾嘔³⁾ 汗出하면 雖久나 陽旦證이 續在耳니 可與陽旦湯⁴⁾이라 卽桂枝湯이니 方見下利中이라

【校勘】

1) 產後風續之: 『脈經·卷九 平產後諸病鬱冒中風發熱煩嘔下利證第三』에는 “婦人產得風續之”로, 『桂林古本』에는 “產後中風”으로, 『心典』에는 “產後風續續”으로 되어 있다.

2) 心下悶: 『脈經·卷九 平產後諸病鬱冒中風發熱煩嘔下利證第三』에는 “心下堅”으로 되어 있다.

3) 頭微痛 惡寒 時時有熱 心下悶 乾嘔 汗出 雖久 陽旦證 續在耳 可與陽旦湯: 『桂林古本』에는 “頭痛 惡寒 發熱 心下滿 乾嘔 續自微汗出 小柴胡湯主之”로 되어 있다.

4) 雖久 陽旦證 續在耳 可與陽旦湯: 『脈經』에는 “雖久 陽旦證 續在 可與陽旦”으로 되어 있다.

【註釋】

(1) 續: 繼也, 이을 속

(2) 心下悶: 명치 밑이 답답한 증상.

(3) 乾嘔: 헛구역질로 胃 내용물은 나오지 않는다.

【國譯】

產後중풍이 數十日이 지나도록 풀리지 않고 머리가 조금 아프고 惡寒하고 때로 熱이 나며 心下가 답답하고 헛구역질을 하며 땀이 나면 비록 오래되었으나 陽旦證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니 陽旦湯을 투여할 수 있다. 陽旦湯은 곧 桂枝湯이니 處方은 「嘔吐噎下利病脈證治第十七」에 있다.

【考察】

본 條文은 產後에 太陽中風證이 오래도록 낫지 않는 경우의 證治를 서술하였다. 產後에 氣血이 모두 虛損되어 病邪에 대한 抵抗力이 낮아져 外邪의 侵襲이 쉬우니 만약 風邪가 침범하여 表部에 있으면 미약한 頭痛 惡寒 時時發熱 汗出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太陽中風證이며 비록 十餘日 지나도록 낫지 않고 지속되더라도 太陽中風證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64) 吳謙.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649. “熱在裏結在膀胱也之八字는 當在本條上文惡露不盡之下라 未有大承氣湯下膀胱血之理하니 必是傳寫之譌라 再倍二字는 當是衍文이라”

65) 吳謙.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649. “因其產後七八에 有蓄血裏證하고 而無太陽表證하면 則可知非傷寒太陽隨經瘀熱在裏之病이오 乃產後惡露未盡하여 熱結膀胱之病이니 當主以下瘀血이 可也라 若不大便하고 不食譫語하고 煩躁發熱하고 日晡更甚至夜卽愈하면 此爲胃實之病이오 非惡露不盡之病 이니 以其日晡更甚至夜卽愈하면 則可知病不在血分而在胃也라 故以 大承氣湯으로 下之라”

이므로 產後라 하더라도 期間의 長短에 拘碍되지 않고 太陽中風證을 치료하는 것으로 원칙을 삼는다. 이러한 방식은 「藏府經絡先後病脈證治第一」에 “문기를 病에 빨리 裏部를 치료해야 마땅한 것이 있고 빨리 表部를 치료해야 마땅한 것이 있다고 하니 무엇을 말합니까? 先生께서 대답하시기를 病을 醫師가 瀉下시켜서 계속 泄瀉가 나고 大便으로 消化되지 않은 飲食이 나오는 것이 멈추지 않고 身體가 疼痛한 것은 빨리 裏部를 치료해야 마땅하고, 나중에 身體가 疼痛하고 大小便이 正常으로 恢復된 것은 빨리 表部를 치료해야 마땅하다.”고 한 例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陽旦證』은 陽旦湯을 사용하는 病證이며 이는 原文에 나타나 있는 產後에 太陽中風證을 알아서 “頭痛 惡寒 時時有熱 心下悶 乾嘔 汗出”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다만 陽旦湯에 대하여 原文의 注釋과 成戊己 등은 桂枝湯으로, 徐彬은 桂枝湯加黃芩으로, 魏荔澗은 桂枝湯加附子로, 陳修園은 桂枝湯에서 桂枝를 倍로 하고 附子를 加味한 것으로 보아 차이가 있다. 『傷寒論』에서 桂枝湯을 사용한 例를 보면, 中風 表虛로 인하여 營弱衛強하여 생긴 頭痛發熱汗出 惡風寒 鼻鳴乾嘔脈浮緩한 경우와 太陽病을 攻下한 뒤 다시 發汗시켜서 心下痞惡寒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原文에 記載된 症狀이 모두 포함되므로 陽旦湯은 桂枝湯의 別名으로 본 것이 비교적 타당하다.

第 9條. 產後中風の 竹葉湯證

【原文】

產後¹⁾中風에 發熱 面赤²⁾ 喘而頭痛하면 竹葉湯主之라

竹葉湯方

竹葉一分 葛根三兩 防風一兩 桔梗一兩 桂枝一兩 人參一兩 甘草一兩 附子一枚 炮 大棗十三枚 生薑五兩³⁾

右十味를 以水一斗로 煮取二升半하야 分溫三服하고 覆¹⁾使汗出이라 若頸項強하면 用大附子一枚를 破之如豆大하야 煎藥하야 揚²⁾去沫이오 嘔者는 加半夏升洗³⁾라

【校勘】

1) 產後：『脈經·卷九 平產後諸病鬱冒中風發熱煩嘔下利證第三』에는 “婦人產後”로 되어 있다.

2) 面赤 喘而頭痛：『桂林古本』에는 “頭痛 汗出而喘 脈弦數者”로, ‘面赤’이 『脈經』·『醫統本』·『心典』에는 “面正赤”으로 되어 있다.

3) 竹葉一分 葛根三兩 防風一兩 桔梗一兩 桂枝一兩 人參一兩 甘草一兩 附子一枚 炮 大棗十三枚 生薑五兩：『桂林古本』에는 “竹葉一把 葛根三兩 桔梗一兩 人參一兩 甘草一兩 生薑五兩 大棗十五枚劈”으로, ‘竹葉一分’이 『醫統本』·『心典』에는 “竹葉一把”로, ‘桔梗一兩 桂枝一兩’이 『醫統本』에는 “桂枝 芍藥三兩”으로 ‘大棗十三枚’가 『醫統本』·『心典』에는 “大棗十五枚”로 되어 있다.

4) 右十味 以水一斗 煮取二升半 分溫三服 覆使汗出 若頸項強 用大附子一枚 破之如豆大 煎藥揚去沫 嘔者 加半夏升洗：『桂林古本』에는 “右七味 以水八升 煮取三升 去滓 溫服一升 日三服”으로, ‘覆使汗出’이 『醫統本』에는 “溫覆使汗出”로, ‘若頸項強’이 『醫統本』에는 “若項強”으로, ‘煎藥揚去沫’이 『醫統本』·『心典』에는 “前藥揚去沫”로 되어 있다.

【註釋】

- (1) 覆：上蓋, 덮어 쌀 부
- (2) 揚：飛擧, 날릴 양
- (3) 洗：滌也, 씻을 세

【國譯】

產後中風에 熱이 나고 얼굴이 붉고 천식하면서 머리가 아프면 竹葉湯으로 主治한다.

竹葉湯方

竹葉一分 葛根三兩 防風一兩 桔梗一兩 桂枝一兩 人參一兩 甘草一兩 附子一枚 炮 大棗十三枚 生薑五兩
 以上の 열 가지 藥材를 물 一斗로 二升半이 되도록 달여서 세 번에 나누어 따뜻하게 마시고 이불을 덮어서 땀이 나도록 한다. 만약 頸項部가 뻣뻣하면 大附子一枚를 콩알 크기로 부수어서 앞의 藥材들과 함께 다려서 휘저어 거품을 없애고, 嘔吐를 하는 경

우에는 깨끗하게 씻은 半夏半升을 加味한다.

【考察】

본 條文은 産後中風에 外感風熱이 兼하여 虛陽이 위로 떠오른 證治를 서술하였다. 産後에는 氣血이 虛하여 外感風邪가 쉽게 침범하여 發熱頭痛의 증상이 나타나고, 元陽이 虛하여 下部에서 있지 못하고 虛陽이 위로 떠올라 面赤氣喘의 증상이 발생한 것이다.

“面赤”에 대하여 두 가지 說明이 있으니 첫째, 高學山은 평소 陽氣가 虛寒한데 風邪가 太陽經으로 들어오면 虛한 틈을 타고서 陽明經으로 들어갔으나 아직 太陽經의 症狀이 없어지지 않은 것으로서 太陽病이 없어지지 않았으므로 頭痛이 그치지 않고, 陽明胃가 陽邪를 받아 虛熱로 化하여 陽明의 部位인 얼굴에 반응이 나타나므로 面赤하게 되는 것⁶⁶⁾으로 보았다. 둘째, 徐彬은 面赤은 단순히 얼굴이 淡紅한 것이 아니라 朱砂를 얼굴에 바른 것과 같은 것이니 眞陽이 떠오른 것⁶⁷⁾으로 보았다.

두 가지의 설명에 비록 차이는 있으나, 面赤의 症狀을 『傷寒論』 48條에 “面色緣緣正赤者 陽氣佛鬱在表”라 하여 陽氣가 表部에 鬱滯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辛溫微汗하고 清裏熱시키는 桂枝二越婢一湯을 사용한 原理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즉 産後에 氣血이 모두 虛하고 虛陽이 떠오른 경우에 만약 表證만을 치료하면 氣가 떠올라 빠져나가기 쉽고, 만약 裏部만을 補한다면 表部의 邪氣가 낮지 않으므로 表裏를 모두 치료하여 扶正祛邪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竹葉葛根桂枝防風桔梗으로 外感風熱邪를 除去하고, 人參附子로 裏部の 陽氣가 不足한 것을 補하면서 甘草生薑大棗로써 陰陽의 氣를 調和시켜 安定시키기⁶⁸⁾ 위하

여 竹葉湯을 사용하였다.

본 條文에 대하여 吳謙은 “産後中風”의 아래에 “病瘥者”가 脫簡된 것⁶⁹⁾으로 보았으며, 程林 또한 産後에 血虛하고 땀을 많이 흘려서 風邪가 침범하기 쉬우므로 瘥病이 된다. 비록 症狀이 背反張에 이르지 않는으나 發熱面赤頭痛의 증상 또한 瘥病의 징조이므로 竹葉으로 風瘥을, 防風으로 內瘥을, 葛根으로 剛瘥을, 桂枝로 柔瘥을, 生薑으로 風邪를, 桔梗으로 風痺를 치료하여 辛味로써 發散시키는 藥이라⁷⁰⁾ 하였고, 또한 原文에 있는 竹葉湯의 活套에 瘥病을 뜻하는 “若頸項強”이 있는 것으로 보아 吳謙 등의 주장이 타당하며, 따라서 본 條文에 제시된 症狀 외에도 病勢가 심해지면 瘥病이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藥材의 用量에 관하여 原文에는 竹葉이 “一分”으로 되어 있으나 『桂林古本』에는 “一把”로 되어 있는 것이 합당하므로 이를 따른다.

第 10條. 授乳期の 煩亂 嘔逆의 治法

【原文】

婦人乳中虛¹⁾하야 煩亂²⁾嘔逆하면 安中³⁾益氣²⁾니 竹皮大丸主之라

竹皮大丸方

生竹茹二分 石膏二分 桂枝一分 甘草七分 白薇³⁾

右五味를 末之하야 棗肉과⁵⁾ 丸彈子大⁶⁾하야 以飲服一丸호대 日三夜二服이라 有熱者는 倍白薇하고 煩

竹葉葛根桂枝防風桔梗하야 解外之風熱이오 人參附子하야 固裏之脫이오 甘草姜棗하야 以調陰陽之氣而使其平이니 乃表裏兼濟之法이라”

66)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3. p.648. 高學山云 “此條之中風은 因其人之陽氣本自虛寒 故로 風從太陽中入하면 即乘虛而傳陽明之經腑하고 且聚有水氣在胃而太陽尚未罷之候也라 太陽未罷 故로 頭痛不止오 胃腑受陽邪而化虛熱하고 面爲陽明之應 故로 正赤이라”

67) 徐彬.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金匱要略論註.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178. “然而正赤은 此非小可淡紅이오 所謂面若粧朱는 乃眞陽上浮也라”

68) 尤怡 著. 金匱要略心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69. “此는 産後表有邪而裏適虛之證이니 若攻其表하면 則氣浮易脫이오 若補其裏하면 則表邪不解라 竹葉湯에 用

69) 吳謙.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p.650-651. “産後中風之下에 當有病瘥者之三字라야 始與方合이라 若無此三字則人參附子施之於中風發熱可乎야”

70) 吳謙.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651. 程林曰 “産後에 血虛하고 多汗出하야 喜中風 故로 令病瘥이나 今證中未至背反張而發熱面赤頭痛은 亦風瘥之漸 故로 用竹葉主風瘥하고 防風治內瘥하고 葛根撥剛瘥하고 桂枝治柔瘥하고 生薑散風邪하고 桔梗除風痺하니 辛以散之劑也라”

喘者是 加枳實一分⁵⁾이라

【校勘】

1) 婦人乳中虛：『脈經』에는 “婦人產中虛”로 되어 있다.

2) 婦人乳中虛 煩亂嘔逆 安中益氣：『桂林古本』에는 “產後煩亂 嘔逆 無外證者 此乳中虛也”로 되어 있다.

3) 白薇：『醫統本』、『桂林古本』、『心典』에는 “白薇一分”으로 되어 있어 本文에 重量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따른다.

4) 棗肉和丸彈子大：『桂林古本』에는 “棗肉和丸如彈子大”로 되어 있다.

5) 煩喘者 加枳實一分：『桂林古本』에는 없고, 『心典』에는 “加枳實一分”이 “加枳實一分”으로 되어 있다.

【註釋】

(1) 乳中虛：産後의 授乳期에 體力이 虛한 상태.⁷¹⁾

(2) 煩亂：心中懊惱不安也.

(3) 安中：脾胃의 氣를 調和시키는 方法.

(4) 益氣：補氣也. 補氣藥으로 氣虛를 治療하는 方法.

(5) 和：調味, 섞을 화

(6) 彈子大：彈丸大와 같다. 丸劑 1알의 크기가 옛날 탄알 크기 만한 것이나 달걀 노른자 만한 것을 말한다. 탄자대는 오동나무의 씨 10개 정도이며 보통 15~20g 정도이다.

【國譯】

婦人이 授乳中에 體力이 虛하여 마음이 괴롭고 嘔逆하면 安中益氣하여야 하니 竹皮大丸으로 主治한다.

竹皮大丸方

生竹茹二分 石膏二分 桂枝一分 甘草七分 白薇

위의 다섯 가지 藥材를 가루를 내어 棗肉과 반죽하여 彈子大 크기로 丸을 만들어 물에 一丸씩 낮에 세 번, 밤에 두 번 服用한다. 熱이 있으면 白薇를 배

로 하고, 煩躁와 喘息이 있는 사람은 枳實一分을 加味한다.

【考察】

본 條文은 産後에 虛熱로 인하여 발생되는 煩躁와 嘔逆의 證治를 서술하였다. 中焦는 水穀之氣를 받아 汁을 取하여 위로는 心에 들어가 血이 되고, 아래로는 胃를 安定시켜 氣를 調和시킨다. 그러나 체력보다 과다하게 授乳하게 되면, 中焦가 虛弱해져서 위로 心에 들어가 血로 化하지 못하므로 心神이 依託할 곳이 없어서 마음이 괴롭고, 아래로 胃를 편안하여 氣를 調和할 수 없어서 氣가 치밀어 오르면 嘔逆이 된다. 따라서 甘草와 大棗肉으로 中焦를 補充하여 乳汁液을 化生하고, 桂枝와 竹茹를 사용하여 心과 脈絡을 疏通시켜서 心血이 생기도록 도우면 神이 依託할 곳이 생겨서 煩亂이 그친다. 石膏와 白薇를 써서 清胃降逆하면 氣가 편안히 길러져서 嘔逆이 그친다.⁷²⁾

第 11條. 産後下利의 治法

【原文】

産後下利¹⁾ 虛極엔 白頭翁加甘草阿膠湯主之¹⁾라

白頭翁加甘草阿膠湯方

白頭翁二兩 甘草二兩 阿膠二兩 秦皮三兩 黃連三兩 藥²⁾三兩

右六味를 以水七升으로 煮取二升半하고 內³⁾膠令 消盡하야 分溫三服²⁾이라

【校勘】

1) 産後下利虛極 白頭翁加甘草阿膠湯主之：『脈經·卷九 平産後諸病鬱冒中風發熱煩嘔下利證第三』에는 “婦人熱利重下 新産虛極 白頭翁加甘草湯主之”로, 『桂

72) 唐容川, 金匱要略淺注補正. 臺北, 力行書局有限公司, 1993. p.278. “中焦受氣取汁하여 主入心而變血하고 下安胃以和氣나 乳汁去多하면 則中焦虛乏하야 不能入心化血則 心神無依而煩亂하고 下不能安胃以和氣則衝氣上逆而爲嘔逆이라 是以로 其方君甘草棗肉하야 以填補中宮하야 化生 汁液하고 而又用桂枝竹茹하야 達心通脈絡하야 以助生心血 하면 則神得憑依而煩亂止라 用石膏白薇하야 以清胃降逆하야 則氣得安養而嘔逆除라”

71) 伍卓琪, 金匱婦科研究. 臺北, 國立中醫藥研究所, 1997. p.47. “乳中虛者는 産後在乳者期間에 體力尙虛也라”

林古本』에는 “産後下利 脈虛極者 白頭翁加甘草阿膠湯主之”로, 『金鑑』에는 “産後下利及虛極 白頭翁加甘草阿膠湯主之”로 되어 있다.

2) 以水七升 煮取二升半 內膠令消盡 分溫三服 : 『桂林古本』에는 “以水五升 先煮五味 取三升 去滓 納膠烱消 分溫三服”이 타당하므로 이를 따른다.

【註釋】

- (1) 下利 : 下痢. 泄瀉와 痢疾을 통틀어 일컫는 말.
- (2) 蘗皮 : 黃柏
- (3) 內 : 入也, 들일 납

【國譯】

産後에 下利를 하여 氣血이 매우 虛하면 白頭翁加甘草阿膠湯으로 主治한다.

白頭翁加甘草阿膠湯方

白頭翁二兩 甘草二兩 阿膠二兩 秦皮三兩 黃連三兩 蘗皮三兩

阿膠를 뺀 다섯 가지 藥材를 물 七升으로 二升半이 되도록 달여서 阿膠를 넣고 완전히 녹으면 세 번에 나누어 따뜻하게 服用한다.

【考察】

본 條文에 대하여 吳謙 등은 “詳考하건대, 이 條文의 意味는 藥과 證이 合致되지 않으므로 解釋하지 않는다.”⁷³⁾고 하였으나, 대부분의 註釋家들은 唐容川이 “仲景이 몇 條文에서 産後의 傷寒을 말하기도 하고, 産後의 中風을 말하기도 하였으며, 이 條文은 産後의 痢疾에 대하여 말하였다.”⁷⁴⁾고 한 바와 같이 産後에 熱利下重하여 매우 虛弱하게 되었으면 白頭翁加甘草阿膠湯으로 主治하는 것으로 解釋하여 證과 脈이 符合되는 것으로 보았다.

白頭翁湯은 白頭翁二兩 黃柏三兩 黃連三兩 秦皮

三兩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傷寒病 厥陰證의 ‘熱利下重’과 ‘欲飲水’에 사용하는 처방이므로 본 條文의 下利는 熱利에 속하며, 지금의 細菌性赤痢와 가깝다.⁷⁵⁾ 이는 産後에 出血, 用力過度, 汗出 등으로 인하여 抵抗力이 떨어져 細菌性痢疾이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思料된다.

그러므로 白頭翁으로 下焦에 맺힌 熱邪를 없애기 위하여 君藥으로 삼았고, 心火를 식히기 위하여 黃連으로 臣藥으로 삼았으며, 秦皮로써 淸熱하고, 黃柏으로 腎熱을 식히는⁷⁶⁾ 白頭翁湯을 사용하였고 또한 甘草로써 益氣하고 胃氣를 길러 津液이 생기게 하며, 阿膠로써 補血益脾하여 産後에 陰液이 부족하여 발생된 熱利와 氣血이 매우 虛한 證을 치료하였다.

附方. 千金三物黃芩湯

【原文】

千金三物黃芩湯 治婦人어 在草蓐¹⁾에 自發露得風²⁾하여 四肢苦煩熱이라 頭痛者는 與小柴胡湯이오 頭不痛하고 但煩者는 此湯主之라

黃芩一兩 苦參二兩 乾地黃四兩

右三味를 以水八升¹⁾으로 煮取二升하여 溫服一升하면 多吐下蟲이라

【校勘】

1) 以水八升 : 『醫統本』, 『心典』에는 “以水六升”으로 되어 있다.

【註釋】

(1) 草蓐 : 풀로 엮어서 만든 거적으로서, 옛날에 分娩할 때 이를 깔았던 風蓐이 있었다. *蓐: 薦也, 깔개 욱.

(2) 自發露得風 : 分娩할 때 産母가 옷을 벗고 조심하지 않아서 外邪가 侵入하는 것.

73) 吳謙.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652. “按건대 此條文義는 證藥不合하니 不釋이라”

74) 唐容川. 金匱要略淺注補正. 力行書局有限公司. 臺北. 1993. p.279. “仲景은 此數節에 或言産後傷寒하고 或言産後中風하며 此又言産後或得痢疾이라”

75) 伍卓琪. 金匱婦科研究. 臺北. 國立中醫藥研究所. 1997. p.48. “此는 與近代之細菌性赤痢로 近似라”

76) 徐彬.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金匱要略論註.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179. “蓋白頭翁은 純苦能擘腎 故로 爲驅下焦風熱結氣召藥이오 以黃連하여 淸心火也오 秦皮는 淸熱也며 柏皮는 淸腎熱也라”

【國譯】

千金 三物黃芩湯은 婦人이 解産할 때에 조심하지 않아 外邪가 侵入하여 四肢가 괴롭고 煩熱이 나는 것을 치료한다. 머리가 아픈 경우에는 小柴胡湯을 投與하나, 머리가 아프지 않고 煩燥만 하면 三物黃芩湯으로 上治한다.

黃芩一兩 苦參二兩 乾地黃四兩

위의 세 가지 藥材를 물 八升으로 二升이 되도록 달여서 一升씩 따뜻하게 마시면 대개는 蟲을 吐하거나 大便으로 蟲이 나온다.

【考察】

본 條文은 産後에 血虛한데 조심하지 않아 風邪가 침범하여 熱症이 된 것⁷⁷⁾을 서술하였다.

産後에 陰虛하고 四肢가 亡血된 뒤에 陽氣가 홀로 盛하고 또 風邪에 感觸되면 煩熱로 괴로워하나 表證이 많으면 위로 올라가 頭痛이 되어 上焦의 症狀이 重하게 되므로 小柴胡湯으로 和解시킨다. 그러나 만약 下焦로 들어가서 濕과 熱이 하부에 맺히면 반드시 蟲이 생기지만 頭痛은 없으므로 清熱하는 黃芩으로 君藥을, 去風殺蟲하는 苦參으로 臣藥을, 元陰을 補하는 乾地黃으로 佐藥을 삼는다.⁷⁸⁾

千金內補當歸建中湯

【原文】

千金內補當歸建中湯 治婦人産後虛羸¹⁾不足하고 腹中刺痛不止하고 吸吸少氣²⁾하며 或苦少腹中急摩痛³⁾引腰背¹⁾하고 不能食飲²⁾이라 産後一月에 日得服四五劑면 爲善이니 令人強壯宜라

當歸四兩 桂枝三兩 芍藥六兩 生薑三兩 甘草一兩³⁾

大棗十二枚

右六味를 以水一斗로 煮取三升하야 分溫三服호대 一日令盡이라 若大虛하면 加飴糖⁴⁾六兩호대 湯成內之於火上煖하야 令飴消라 若去血過多하고 崩傷內衄⁵⁾不止면 加地黃六兩阿膠二兩하야 合八味하야 湯成하고 內阿膠⁴⁾라 若無當歸면 以芎藭代之호 若無生薑이면 以乾薑代之라

【校勘】

1) 或苦少腹中急摩痛引腰背：『心典』에는 “或苦少腹中急痛引腰背”로 되어 있다.

2) 不能食飲：『醫統本』에는 “不能飲食”으로 되어 있다.

3) 甘草一兩：『醫統本』·『心典』에는 “甘草二兩”으로 되어 있다.

4) 湯成內阿膠：『心典』에는 “內阿膠”로 되어 있다.

【註釋】

(1) 羸：瘦也, 파리할 리

(2) 吸吸少氣：‘吸吸’은 숨을 들이쉬는 소리이니, ‘吸吸少氣’는 아픔을 참으면서 숨이 들이쉴 때 생기는 숨이 가쁜 현상⁷⁹⁾

(3) 少腹中急摩痛：少腹部가 당기면서 아픈 것⁸⁰⁾

(4) 飴糖：엿을 달리 부른 이름 *飴：飴也, 엿 이

(5) 內衄：內出血

【國譯】

千金內補當歸建中湯은 婦人이 産後에 虛弱하고 수척하며 힘이 없고 腹中의 刺痛이 그치지 않고 가쁜 숨을 들이쉬며, 혹은 少腹部가 당기고 아픈 통증이 허리와 등까지 미치고 飲食을 먹지 못하여 괴로워하는 것을 치료한다. 産後 一箇月에 하루에 四·五 貼을 服用하면 좋으니 産母를 強壯시키는데 마땅하다.

當歸四兩 桂枝三兩 芍藥六兩 生薑三兩 甘草一兩

77) 尤怡 著, 金匱要略心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70. “此는 産後血虛에 風入而成熱之症이라”

78) 徐彬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金匱要略論註,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180. “産後陰虛하고 四肢在亡血之後에 陽氣獨盛하고 又得微風 則苦煩熱이나 然本多則土入而頭痛하야 當以上焦爲重 故로 主小柴胡和解라 若從下受之而濕熱結於下 則必生蟲하야 而頭不痛 故로 以黃芩清熱爲君하고 苦參去風殺蟲爲臣하고 而以地黃補其元陰爲佐라”

79)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譯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653. “吸吸은 卽吸氣之聲이라 吸吸少氣는 指忍痛吸氣時而發生氣短不足之象이라”

80)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譯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653. “少腹拘急摩痛”

大棗十二枚

이상 여섯 가지 藥材를 물 一斗로 三升이 되도록 달여서 세 번에 따뜻하게 복용하되 하루에 모두 服用한다. 만약 매우 虛하면 飴糖六兩을 湯에 넣되 불 위에 놓아 따뜻하게 해서 飴糖을 완전히 녹인다. 만약 出血이 過多하고 崩漏로 인한 內出血이 멈추지 않으면 地黃六兩을 넣어 일곱 가지 藥材를 만들되 湯液을 만든 뒤에 阿膠를 넣는다. 만약 當歸가 없으면 芍藥을 代用하고, 生薑이 없으면 乾薑을 代用한다.

【考察】

本方은 『備急千金要方卷三』 産後心腹痛門에 나오며, 桂枝가 桂心으로 되어 있는 것과 生薑이 六兩, 大棗가 十枚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主藥, 用法, 加減 등은 모두 基本이 같다.

産後에 몸에 비록 病이 없더라도 血海가 반드시 虛한데 만약 中氣가 充實하면 氣血이 비록 虛하더라도 쉽게 恢復되지만 혹 後天의 氣가 血을 生成하여 血海를 充滿하게 하지 못하면 虛弱하고 瘦瘠하며 힘이 없는 현상이 나타난다. 氣血이 正常이지 않아서 鬱血이 되면 腹中刺痛이 그치질 않고, 衝脈任脈督脈帶脈이 안에서 虛하면 少腹部가 땅기는 痛症이 허리와 등에까지 이르고, 脾胃氣가 虛하면 가쁜 숨을 쉬고 飲食을 먹지 못한다.⁸¹⁾ 이러한 現象은 1條에 分娩過程을 통하여 産母는 出血과 汗出 및 用力過度하기 쉽고 이에 따라 分娩 後에 瘕病鬱胃便秘가 잘 발생되는 경우와 같은 이유로 발생된다. 그러나 본 조문은 일반적인 경우를 논술한 반면에, 1條는 이것이 重한 상태를 논술한 것으로 思料된다.

産後에 虛弱하고 瘦瘠하며 힘이 없는 것은 먼저 陰虛하게 되고 나중에 陽虛하게 된 것으로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補陰을 하면 寒氣가 凝結되고 補陽하면 氣가 壅滯하게 된다. 따라서 後天의 氣를 充實하게

하기 위해서는 中氣를 爲主로 해야 하므로 建中湯을 써야 한다. 다만 補를 함에 當歸를 加味하여 內를 補하는 것에 偏重되었으므로 內補當歸建中湯이라고 하였다.⁸²⁾ 內補當歸建中湯은 小建中湯에 當歸를 加한 것으로 小建中湯은 陰陽을 調和시키고 中氣를 健壯하게하며 아울러 拘急된 것을 弛緩시키고 止痛시키고, 當歸는 和血養血한다. 中氣가 健壯하게 되면 氣血이 化生되는 源泉이 있어서 모든 虛證이 저절로 낫게 된다.

그러므로 이 處方은 産後에 調理하고 補益하는데 효과가 있다. 內補當歸建中湯의 전체적인 성질이 溫하기 때문에 陽虛하여 脾胃가 虛寒한 경우에만 쓸 수 있고, 陰虛한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⁸³⁾ 産母가 出血이 많고 崩漏로 內出血이 그치지 않는 경우에 乾地黃과 阿膠를 加味하는 것은 陰血이 偏重되게 損傷되었기 때문이므로 특히 陰藥인 芍藥을 많이 加味하였으나 産後에 반드시 乾地黃과 阿膠를 써야할 필요는 없다.⁸⁴⁾

IV. 結 論

『金匱要略婦人産後病脈證治第二十一』은 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産後病의 證治를 논한 것으로, 産母는 分娩時 생기는 生殖器官의 損傷, 多量의 出血 및 과도한 體力消耗 등으로 인하여 疾病에 대한 抵抗

81) 沈明宗, 沈注金匱要略, 中國醫學大成·傷寒金匱分冊 金匱玉函經二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810. “産後體雖無病이나 血海必虛라 若中氣充實하면 氣血雖虛나 易能恢復이오 或後天不能生血尤於血海하면 則見虛羸不足이라 … 因氣血不利而瘀하면 則腹中刺痛不止오 衝任督帶內虛하면 則少腹中急摩痛引腰背오 脾胃氣虛하면 則吸吸少氣하고 不能飲食이라”

82) 徐彬,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金匱要略論註,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p.180-181. “産後虛羸不足은 先因陰虛하고 後併陽虛이나 補陰則寒凝하고 補陽則氣壅하니 後天以中氣爲主 故로 此法亦出於建中이라 但加當歸即偏於內 故로 內補當歸建中湯이라”

83)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譯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654. “本方은 卽小建中湯加當歸라 方中當歸和血養血이오 小建中湯은 調陰陽建中氣하며 并能緩急止痛이라 中氣建하면 氣血生化有源하야 諸虛之證亦自解 故로 本方亦爲産後調補有關之劑나 但因其性質偏於溫性하니 只宜用於素體陽虛而脾胃虛寒者하고 若素體陰虛而胃陰不足者면 則不可與之라”

84) 徐彬,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金匱要略論註,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180. “若去血過多하고 崩傷內虛에 加乾地黃阿膠는 以其所傷이 原偏於陰 故로 特多加陰藥이나 非産後必宜用地黃阿膠也라”

력이 뚜렷하게 低下되므로 飲食起居 七情 六淫에 있어 謹慎하지 않으면 疾病이 발생되기 매우 쉬운 특징이 있다.

第 1條. 본 條文은 産後에 發生하기 쉬운 瘧病鬱胃便秘의 病理機轉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分娩過程을 통하여 産母는 出血과 汗出 및 用力過度하기 쉽고 이에 따라 分娩 後에 瘧病鬱胃便秘가 잘 발생된다.

産後瘧病의 症狀은 身體가 强直되는 것으로, 腦脊髓膜炎, 産後子痲, 産後破傷風에 해당된다. 原因을 “喜中風”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破傷風을 일으키는 細菌感染이라고 思料된다.

産後鬱胃의 症狀은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침침하다. 原因은 産後出血로 血虛하고 汗出로 亡陽이 된 상태에서 寒邪가 侵犯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産後便秘에는 두 가지 原因이 있다. 첫째는 産後에 出血過多로 腸胃의 津液이 부족한 것과 둘째는 産後에 腹脹이 弛緩되어 直腸의 蠕動運動이 不振하기 때문이다.

第 2條. 産後鬱胃는 현대의 産褥熱(puerperal fever)에 해당되며, 産道의 創傷面에 病原菌의 침입이 原因이다. 主要症狀은 下腹部가 찌르듯이 아파서 손으로 만질 수 없고 生殖器에 灼熱感이 있고 惡露分泌에 障碍가 있으며, 全身症狀으로는 寒戰·高熱·頭痛·四肢痠疼·煩渴·懊惱·多汗 및 便秘가 있다.

第 3條. 産後 鬱胃 差後의 發熱 證治를 논술한 것으로, 大承氣湯으로 胃腸의 熱邪를 滌蕩하여 치료한다. 다만, 産後에는 大개 虛하고 大承氣湯은 苦寒한 藥物으로써 攻下하는 處方이므로 産後에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精確하게 辨證을 하여야 한다.

第 4條. 當歸生薑羊肉湯을 血虛寒疝에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産後에 虛寒하여 발생하는 腹中疝痛 또한 當歸生薑羊肉湯으로 치료하였다.

第 5條. 産後에 氣鬱血滯된 腹痛의 證治를 서술한 것으로, 産後의 腹痛에 煩滿不得臥하는 것은 氣結血凝하여 熱이 된 것이므로 枳實으로써 氣結된 것을 깨뜨

리고 芍藥으로 腹痛을 緩和시키기 위하여 行氣和血하는 枳實芍藥散을 主治方으로 삼았다.

第 6條. 産後에 瘀血이 胞宮에 鬱結되어 發生되는 腹痛의 證治를 서술한 것으로 乾血이 原因이므로 下瘀血湯을 主治方으로 삼았다.

第 7條. 惡露不盡腹痛의 證治를 서술한 것으로서, 産後에 少腹堅痛 煩躁 發熱 譫語에 大承氣湯을 主治方으로 삼았다.

第 8條. 産後에 太陽中風證이 오래도록 낫지 않는 경우의 證治를 서술한 것으로 陽旦湯을 主治方으로 삼았으며, 陽旦湯은 桂枝湯의 別名으로 思料된다.

第 9條. 産後의 外感風熱에 兼하여 虛陽이 위로 떠오른 證治를 서술한 것으로, 竹葉湯을 主治方으로 삼았으며, “産後中風”의 아래에 “病瘵者”가 脫簡된 것으로 思料된다.

第 10條. 授乳中에 虛熱로 인하여 발생하는 煩亂과 嘔逆의 治法을 서술한 것으로 竹皮大丸을 主治方으로 삼았다.

第 11條. 産後에 熱利下重의 治法에 대하여 서술한 것으로 白頭翁加甘草阿膠湯을 主治方으로 삼았다. 본 條文의 下利는 熱利에 속하며, 지금의 細菌性赤痢(bacillary dysentery) 유사한 것으로 思料된다.

附方. 千金三物黃芩湯은 産後에 血虛한데 조심하지 않아 風邪가 침범하여 煩熱이 된 것을 서술하였다.

附方. 千金內補當歸建中湯은 産後에 몸에 비록 病이 없더라도 血海가 반드시 虛한데 만약 中氣가 充實하면 氣血이 비록 虛하더라도 쉽게 恢復되지만 後天의 氣가 血을 生成하여 血海를 充滿하게 하지 못하면 虛弱하고 瘦瘠하며 힘이 없는 경우의 主治方이다.

參考文獻

<논문>

1. 成百萬.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0. p.100, 101.

<단행본>

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재편집 동의학사전. 서울. 까치. 1990.
2. 金赫濟, 金星元. 明文漢韓大字典. 서울. 集文堂. 1991.
3. 唐宗海. 金匱要略淺注補正. 臺北. 力行書局有限公司. 1994. p.278, 279.
4. 民族文化研究所. 中韓辭典. 서울. 高麗大學校. 1998.
5. 民衆書館編輯局. 漢韓大字典. 서울. 民衆書林. 1984.
6. 謝觀.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高文社. 1987.
7. 商務印書館編輯部. 辭源. 香港. 商務印書館. 1987.
8. 徐彬.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金匱要略論註.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178, 179, 180. pp.180-181.
9. 孫思邈 著. 李景榮 등 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10. 沈明宗. 沈注金匱要略. 中國醫學大成·傷寒金匱分冊 金匱玉函經二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810.
11. 吳謙.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538, 643, 646, 647, 649, 652. pp.166-172, 650-651.
12. 吳大眞 總編. 中醫辭海上. 北京. 中國中醫藥科技出版社. 1999.
13. 伍卓瑛. 金匱婦科研究. 臺北. 國立中醫藥研究所. 1997. p.39, 40, 42, 43, 47, 48.
14. 王肯堂. 證治準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5. 王燾. 外臺秘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16. 王冰.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129, 558.
17. 王叔和. 影宋版 脈經. 大板. 東洋醫學研究院. 1981.
18. 王懷隱 等. 太平聖惠方. 서울. 翰成社. 1978.
19. 尤怡. 金匱要略心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30, 168, 169, 170.
20. 魏荔洞 撰. 金匱要略方論本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272, 274.
21.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22.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譯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636, 638, 648, 653, 654.
23. 李炆 著. 金匱要略廣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58, 186, 187. pp.184-190.
24. 張三植. 大漢韓辭典. 서울. 集文堂. 2001.
25. 張仲景 原著. 王叔和 撰次. 林億 校正 趙開美 校刊. 仲景全書 金匱要略方論. 서울. 정보사. 1985.
26. 曹家達. 金匱要略發微. 臺北. 志遠書局. 2003.
27. 趙以德, 周揚俊. 中國醫學大成·傷寒金匱分冊 金匱玉函經二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687.
28. 中國語大辭典編纂室. 中韓辭典. 서울. 高대民族文化研究所. 1989.
29. 中醫研究院. 中醫名詞述語辭典. 서울. 民衆書林. 1984.
30. 中醫研究院·廣東中醫學院. 中醫名詞述語辭典. 香港. 知識出版社. 年度未詳.
31. 陳紀藩 主編. 中醫藥學高級叢書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673, 697.
32. 陳念祖. 金匱要略淺註. 台南. 綜合出版社. 1990.
33. 蔡仁植, 權賢德, 邊元九. 漢方醫學用語大辭典. 서울. 癸丑文化社. 1983.
34. 蔡仁植. 金匱要略精解. 大邱.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1982.
35. 韓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增訂 韓醫學大辭典. 서울. 정담. 2001.
36. 許俊.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3. p.621.